

집안시 랑수조선족향

민족단결 변경안녕 향촌진흥의 아름다운 그림 그린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평안변경 건설 깊이있게 추진



랑수조선족향은 집안시에서 유일한 소수민족향이다. 총면적은 156 평방키로메터이고 조선족 인구는 31%를 차지하며 서남쪽으로는 혼강을 경계로 료녕성 관전현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조선과 마주하고 있다. 산하에 10개의 행정촌이 있으며 그중 5개 촌은 변경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최근년간 랑수조선족향은 현지 여러 기관과 힘을 합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다지는 것을 주선으로 평안변경 건설 활동을 깊이있게 추진하고 독특한 변경강화와 향촌진흥의 길을 개척하며 민족단결, 변경안녕, 향촌번영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냈다. 2022년, 랑수조선족향은 통화시로부터 ‘평안시범향진’으로 선정되었고 랑수변경파출소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로부터 ‘제10차 전국민족단결진보시범구시범단위’로 선정되었다.

당정 주도로 다방면 협력체계 구축

랑수조선족향은 당정 총괄 지도하에 다방면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변경관리 난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변경강화와 변경방어 사업을 실직심사에 포함시켰다. 당위원회 서기가

술선적으로 책임지고 하(호)장책임을 실시하며 관리통제 효능을 향상시켰다. 동시에 제도 건설을 최적화하고 ‘평상시 정상관리, 긴급 시 합동처리’의 원칙을 준수하며 효과적인 합동근무와 응급 체계를 구축했다. 향 당위와 정부가 주도하여 변경파출소, 해방군 변방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10여차례의 합동회의, 합동순찰, 합동훈련을 전개함으로써 변경의 안정 유지 관리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정밀한 관리로 사회기반 강화



랑수조선족향은 목적성 있게 정책을 실시하며 파출소 인원의 ‘3 진입’ 등 사업 완성을 100%를 달성했다. 가정방문, 잠재적 위험 조사, 모순 조사처리 효력이 크게 제고되고 경찰 신고와 사건 발생 수량이 각각 7.8%와 11.2% 하락하여 대중들의 만족도가 현저히 제고되었다. 변경지역 정책과 법규, 민족단결에 대한 선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장려체계를 보완해 대중의 참여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민족단결의 변경발전을 추진하고 ‘조작의 공동건설, 당원상호협력, 평안 공동창조, 성과 공유’

조치로 소수민족의 생활에 깊이 진입해 민족정책을 선전하고 당원간부들이 빈곤가정의 어려움을 210여차례 해결해주어 민족단결과 관할지역의 안정을 동시에 이루었다.

엄격한 관리와 통제로 변경 안정 수호

랑수조선족향 당위와 정부, 변경파출소는 변경 안정 방어선을 강화하기 위해 5곳의 변경 경비실을 건설하고 1,600여차례의 순찰을 진행했다. 변경의 주요 지역과 경계를 넘나들기 쉬운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매일 순찰과 점검을 실시했다. 75곳의 영상 감시를 활용하여 비정기적 순찰을 실시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로 변경 안전을 보장했다. 치안단속을 강화하고 대중들이 강력하게 반영하는 불법범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중점 지역에 대한 특별단속행동을 전개했다. ‘이웃끼리 손잡고 서로 돕는’ 활동을 추진해 상호협력조를 구성하고 민간방범대조를 구축하여 ‘모든 곳이 방어망’이라는 합동예방통제 구도를 형성했다.

향촌 진흥으로 전면 발전 추진

향촌 진흥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관할구역 마을에 태양에너지 가로 등 30개를 추가 설치하고 1만 7,000미터의 오수배관을 설치했으며 360여가구의 화장실을 개조했다. 향당위와 향정부는 지속적으로 ‘관광+’ 모식을 구축하여 영전촌의 영전부락 관광지 등 4개 민족특색 관광사업을 추진하고 ‘당 건설+합작사+농가’ 구조로 5개 집단경제사업을 실행해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이끌었다.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켰다. 3개의 태양에너지 대상 수익금을 지급하고 25개의 공익성 일터를 개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105가구의 주택 수리를 돕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켰다.

현재 랑수조선족향은 변경강화, 사회관리, 민족단결, 향촌진흥의 길에서 안정적으로 전진하며 각계의 공동노력에 더욱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통화변경
관리지대



룡정시

중소학교 청렴청풍 가서 공모 활동 진행



습근평 총서기의 가정, 가풍 건설에 관한 중요 문술을 깊이있게 관찰하고 당풍령정 건설에서 가정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일전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룡정시부녀련합회, 룡정시교육국과 함께 ‘가서(家书)’로 청렴을 전하고 청풍으로 마음을 적시다’를 주제로 가서 공모 활동을 개최했다. 이번 가서 공모 활동은 가정 구성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도록 이끌고 청렴한 가풍으로 사회의 청풍과 정의로운 기풍을 함양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공모 활동이 시작된 이래 룡정시 여러 중소학교의 적극적인 참여로 광범한 교원과 학생들의 공모 작품 총 180여편이 모아졌다.

작품에는 청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 가정에서 어른들로부터 들은 청렴 이야기도 담겼으며 부모님의 청렴한 태도에 대한 존경이 담기기도 했다. 이 밖에도 년로한 로인이 손수 가서를 작성해 자손들에게 당부하는가 하면 젊은 부모들은 편지 형식으로 자녀들과 청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교원들은 가서를 매개로 교육의 초심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청렴한 교육 실천에 대해 약속했다. 정성이 담긴 매한통의 가서마다에는 간결하면서도 청렴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가족

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배어있었다.

한편,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무어저 주제 적합도, 정서 표현, 언어 규범, 창의성 등 다양한 기준으로 공모작을 심사했다.

공모는 예심, 재심, 종심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1등상, 2등상, 3등상, 우수상 및 우수지도교원상 등을 선정했다. 수상작들은 주제가 뚜렷하고 감정이 진솔했는바 청렴한 가풍을 노래한 작품부터 부패행위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성찰도 담아내 청렴 문화에 대한 교원과 학생들의 깊은 사고와 실천적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이번 공모 활동을 통해 청렴한 가풍 교육을 학교에서 가정으로 확장시켰으며 전사회적으로 가풍 건설을 중시하고 청렴 문화를 발양하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룡정시규률검사위원회감찰위원회는 앞으로도 가정, 가풍, 가정 교육과 청렴 문화의 융합을 심화하여 가정이라는 ‘청렴보보방’을 끊임없이 튼튼히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이를 통해 청풍이 감도는 건전한 정치생태와 정의로운 사회생태를 조성할 방침이다.

/ 오건기자



통화시

생태환경 개선으로 멸종위기 조류 귀환



중화추사오리

최근, 길림성 통화시 동가강(佟佳江)에서 중화추사오리(中华秋沙鸭)와 가마우지(鸕鶿) 등 멸종위기의 조류들이 무리 지어 서식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이 희귀 조류들은 강물에서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연출하며 이 여름에 아름다움을 더했다.

료해에 따르면 최근년간 통화시는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삼림피복률이 높아지며 수질이 우수해졌다. 현지에서는 체계적인 생태관리와 야생동식물 특별관리 조치를 통해 야생동물에게 최적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희귀 조류들이 잇달아 이 지역을 찾는 것은 통화시의 생태환경이 한층 개선되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통화시생태환경국 수생태환경과 과원인 왕택순은 “물환경 품질 공고, 제고 행동을 통해 하장제, 호장제의 략착을 추진했다. 물환경과 물자원, 물생태 등 ‘3수’ 총괄 및

위험 방지를 강화하고 물환경의 품질을 공고히 하고 제고했으며 검고악취가 풍기는 수체(黑臭水体)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통화시의 지표수 우수 비율과 현금 이상 식수 수원지 수질 적합률은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압록강, 혼강, 휘발하 등 3개 중점 류역의 13개 국가통제단면과 집중 식수 수원지의 물환경 품질은 안정을 유지하며 전부 Ⅲ류 이상에 달했다. 전 시 환경공기질 우량일수는 358일, 우량일수 비율은 97.8%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 성장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통화시는 생태환경 품질을 부단히 제고시켜 이 지역을 야생동물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 길림성생태환경청



연변, 록수청산으로 새로운 발전 도모

오늘날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어딜 가나 경치가 아름답다. 고개 들면 ‘푸른 하늘’이 눈에 띄고 주변을 둘러보면 ‘푸른 생태’가 한눈에 들어온다. 날로 높아져가는 생태환경의 품질은 인민대중들의 행복감, 획득감으로 전화되고 있다. 연길시 거리를 거닐다 보면 도로 양쪽에는 푸른 나무들이 우거져 층층이 선명한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고 있다. 공원으로 일대는 해당화

와 매화, 조형 소나무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독특한 도시 풍경을 이루었다. 록화공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길시는 ‘연길록화미화’ 행동을 통해 도시 풍경을 한층 아름답게 건설했다. 시민 김녀사는 “연길에서의 생활은 매우 행복합니다. 매일 퇴근후 공원에서 산책하면 마음이 특히 편안해집니다.”라고 말한다.

훈춘시의 훈춘강도 석양이 질 때면 하루중 가장 활기찬 시간을 맞이한다. 사진에호가들은 이곳에서 날아오르는 갈매기와 물새들을 촬영하고 있다. 훈춘시는 하(호)장제사업을 실시한 이래 지속적으로 하천과 호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이를 통해 ‘하천이 맑힘없이 흐르고 물이 맑으며

강둑이 푸르고 경치가 아름다우며 인민들이 화목한’ 관리 목표를 달성해 나가고 있다.

연길시와 훈춘시의 사례는 연변조선족자치주 환경보호 정책의 성과를 보여준다. 최근년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정밀하고도 과학적으로 법에 따라 오염을 꾸준히 다스려 푸른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록수청산이 일상화가 되었다. 물자원, 물환경, 물생태 등 ‘3수 총괄’을 강화하고 하천으로 류입되는 오염물 배출구에 대한 감독관리와 처리를 강화했다. ‘청하 행동’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갈수기와 홍수기의 오염 감독관리 강도를 높여 수질 관련 불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했다.

토양오염의 근원적 예방통제를 강화하고 토양오염 중점 감독관리 대상 기업에 대해 조사정비했다. ‘거주 용지와 공공관리 및 공공봉사 용지’(一住两公)를 엄격하게 감독관리하고 ‘록색방패’(绿盾) 자연보호지역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했다. 대기오염 방지를 강화하고 이동오염원, 오존, 비산먼지, 공업기업 등 주요 오염원에 초점을 맞추어 석탄보일러 초저공해 배출 개조와 자동차 배기검사 대행기

관에 대한 전문 처리를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농작물 줄기 소각 금지의 법에 따른 과학적 통제관리와 비산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세분화 관리를 추진했다.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공기 우량일 비률은 99.2%로 전 성 평균 수준을 초과했고 5년 연속 전 성 9개 시(주) 1위를 차지했다. 24개 국가 지표수 심사단면 우량수체 비률은 95.8%로 ‘14.5’계획 기간 최고 수준을 달성했다. 450개 행정촌에 대해 농촌생활오수 처리(관리통제)를 완수했으며 처리률은 40% 이상을 기록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전 성에서 유일하게 전국 생태환경 분야에서 장려와 표창을 받은 도시로 전국적으로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시범사업을 심화하는 데 성공적으로 임선되었다.

생태문명건설시범구 건설을 적극 추진했다. 전 주 8개 현(시)이 성급생태문명시범현(시)이 되었고 훈춘시와 통화시는 선후로 국가생태문명건설시범구로 선정되었다. 2024년 2월에는 통화시와 룡정시가 길림성 ‘록수청산은 금산은산’ 실천혁신기지로 비준받았는데 연변

조선족자치주 현(시) 중 최초로 선정되었다.

발전 방식의 록색 전환을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연변조선족자치주는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하고 대상 기획과 비축을 다그치며 중대 대상 환경평가 승인봉사 장부를 작성하고 동태적으로 갱신했다. 생태환경보호 요구에 부합되는 대상에 대해 록색통로를 열어주고 ‘기업 봉사의 달’, ‘환경보호 전문가 기업 방문’ 등의 지원 활동을 정기적으로 전개하여 ‘기업별 맞춤 전략’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2024년 연변조선족자치주는 생태환경보호 분야의 37개 대상을 기획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6% 증가했으며 생태환경 특별자금 3억 4,000만원을 쟁취,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143% 성장하며 대상 기획과 자금 쟁취에서 ‘두개 제고’를 거두었다. 올해는 농촌생활오수 처리 분야에서 대상 자금 1억 100만원을 확보, 이는 전 성 농촌환경 정비 자금의 42.5%로 전 성 1위를 차지한다.

/ 길림일보

